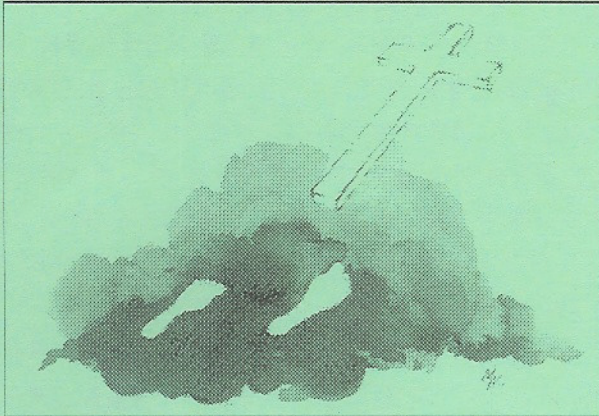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http://www.103skcc.org 제29권 43호(나해) 2009 · 9 · 20

[묵상]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의인의 일생은 하느님 손안에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
의인들의 탈로가 비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파멸로 여겨지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는 행실에 따라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이 고통 속에 있더라도
주님의 축복과 평화는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난도 역경도 굶주림도, 칼이나 죽음도 ...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단죄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제각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당신 뒤를 따라 오라고 ...
누구에게나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다.
그것이 삶에 고통과 환난을 줄 수도 있다.
죽어야 하는 운명도 어쩌면 십자가다.
이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른다.
이 땅의 순교자들을 현양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 (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오전 오후 오후	2:00 10:00 8:00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PACEM모임(매주)	오전 오후 오후 오후	9:30 7:00 8:00 7:3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오후 오후 오후	6:00 5:00 8:3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9:00 1:00 9:00 1:00 2:30 1:00 1:00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310)326-4350
평형회장: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 김길제 안드레아, 한기루스, 김영제&장신자, 김소천마리아
	(생) 이상용 엘리야 & 주영 크리스티아, 신우용 안토니오 남인구 야코보 & 정선 안젤라,
주 일 낮 미사	(연) 이인표, 김길제 안드레아,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김종환 야코보, 이상현 베드로, 이영자 마리아, 이금순 마리아, 최건 바실리오, 여성분 로사, 고정윤 요셉, 엄은삼 도로 테오, 이대영 & 로사, 마리아 & 스테판
	(생) 서병교 라파엘&혜경 세라피나 가정, 정동호 하삼바오 로, 이마테오, 유영균 유르바노&명련 마리아, 이명렬 라파 엘 & 명순 크리스티나 가정, 최금옥 말찌나, 최현찬 안드레 아&도로테아, 이종원베드로&아네스가정, 채수환 마테오, 김지연 요셉피나, 채현 모니카, 성호 요셉, 정할별, 상미연, 그레이스, 박인식 토마스&기원 리디아가정, 박상대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3,1-9

- 화답송**
- ◎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다.
 - ◎ 시온의 귀양을 풀어 주께서 돌려 보내실제 우리는 마치 꿈만 같았나이다. 그때에 우리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흥겨운 노랫가락 혀에 넘쳤나이다.◎
 - ◎ 그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하느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해 주셨다. 주께서 과연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못 건디게 기뻐했나이다.◎
 - ◎ 주여 사로잡힌 우리 겨레를 남녘땅 시냇물처럼 돌려 주소서.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다.◎
 - ◎ 뿌릴 씨를 가지고 울며 가던 그들은 곡식단 들고 올 제 춤추며 돌아오리이다. 주께서 과연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못 건디게 기뻐했나이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31-39

- 복음** ◎ 알렐루야.
- 환호송**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루카(Luke) 9,23-26
-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20
입당	343	343
봉헌	주만 바라 붙어라	269, 270
성체	367	306, 295
파견	Blessed be your name	336

서론

교회는 주님께에서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이들-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슴에 심오하고 설득력 있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모든 사람의 기대들을 놀랍게 충족시켜 주며, 한편으로 그것들을 무한히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역경과 불안 한가운데에서도 진리와 선을 향해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성의 빛과 드러나지 않은 은총의 작용에 의해서, 인간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그 신성한 가치를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 안에서(로마 2,14-15 참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원초적인 선물의 가장 높은 단계까지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인간 존재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 인정의 토대 위에 모든 인간 공동체와 정치 공동체들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다 음과 같이 환기시킨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는 만큼, 이 권리를 옹 호하고 촉진시켜야 합니다. "성자께서는 사실 당신의 강생으로 어 떤 의미에서 당신을 모든 사람과 일치 시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 사건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 신"(요한 3,16)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아울러 계시해 줍니다. 신앙 안에서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있는 교회는 늘 새로운 경이로움 으로 이러한 인간의 가치를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받 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복음은 역사상 모든 시대의 무너뜨릴 수 없는 희망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복음, 인간 존엄성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셋은 하나이며 분리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살아 있는 인간은 교회가 따 라 걸어야 하는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길을 대표합니다.

3) 모든 인간은 사람이 되신(요한 1,14 참조) "하느님 말씀"의 바로 그 신비에 의해서 교회의 모성적 보호에 맡겨졌습니다. 따라 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모든 위협을 그 가슴 깊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위협은 구원을 위한 하느님 아들의 강생에 대한 교회 신앙의 핵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교회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 는 사명에 힘쓰도록 합니다(마르 16,15 참조).

오늘날 이러한 선포는 특히 절박합니다. 개인과 민족들의 생명 에 대한 위협들이, 특히 생명이 약하고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 곳 에서, 유례없이 증가하고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곤, 기아, 풍토병, 폭력과 전쟁 같은 종래의 재앙에 덧붙여 새로운 위협들이 위협스러울 만큼 방대한 규모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이름도 찬란한 순교자들이시여

금년은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자행되었던 순교의
현장인 이 땅에서 103위 시성식이 거행된 지 만 25년이
되는 감격스러운 해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사는
가톨릭신자인 우리 모두는 벽찬 감격과 환희를
안겨주었던 그날의 감동을 영원히 잊지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은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25년 전 시성 되신 103위 성인들은 말로는 차마
표현할수조차 없을 정도로 집요한 회유와 모진 박해의
순간들을이겨내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거나 정치적 압박에 굴하는 일 없이 당당하게
믿는 바를 고백하며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흔쾌히
내어놓는 위대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8-39)라고 진술한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은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기에
드높이 올려지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그리스도처럼’(필리 2,8-9 참조) 지금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를 위해 온 삶을 투신한 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리는 순교 성인들입니다. 그분들의
위대한 삶을 뒤따르는 것이 후손들인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삶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조들이 사셨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가 마치 절대 가치인 양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적은 선조들이 겪었던
박해라는 물리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밋빛으로 위장된 갖가지 물질적인 유혹들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혹의 범위와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현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근원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선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내면적인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치열한 싸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 가치를 살아가기 위해 내려야 할 선택의 순간은
어떤 이유에서든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복음이 가르치는 바가 그 점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위선과 가식의 탈을 뒤집어쓴 채 자기
기만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선조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
진정성이 담겨 있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고 선택의 순간 역시
지금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대운 아오스딩	신덕레 데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남가주 청년 연합회	김금자 데레사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나운아 안젤라	서용숙 에스텔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도랜스 북 1/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지스카	신덕레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황지영 안젤라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도랜스 남 2 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백삼위 작은 음악회에 전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9월27일(주일) 오후 5시~7시30분
- 장소 : 친교장
- 대상 : 전 신자(저녁식사 제공)
- 참가문의 : 각 구역장, 반장

- ◆ **한가위 추석명절 합동 위령미사**
10월4일(주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 추석으로 한해의 수확에 대해 감사 드리는 날입니다.
올 한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서 가신 조상님들과 부모, 형제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이 명절 미사를 봉헌합니다.
● 연도와 분향 : 10월4일(주일) 낮미사 중

- ◆ **외박교우반 세례식 안내**
 - 받아들이는예식 : 9월 24일(목) 오후 7시30분미사 중
 - 세례식 : 9월 27일(주일) 낮미사 중
 - 대부모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아세례**
 - 일시 : 9월26일(토) 5:45 pm
 -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 세례식에는 대부모님들도 꼭 참석해야 합니다.

- ◆ **컴퓨터 무료 교육**
 - 대상 : 요셉회, 안나회 등 어르신들
 - 내용 : 컴퓨터 기초(인터넷 등), 왕초보~초보 환경
실기 위주 및 궁금증 문답형 식진행
 - 일시 : 9월22일부터 매주 화, 목 토 오전 10시~11시30분
 - 준비물 : 개인 노트북 컴퓨터(없는 분은 키보드 공용 가능)
 - 문의 : 김선제 바오로
권진열 피테스 요셉회 총무 ☎(310)800-3592

- ◆ **파푸아 뉴기니 아동을 위한 도서 기증**
 - 목적 : 문명과 동떨어진 밀림속 학교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동들에게 책을 보내줍니다.
 - 도서기준 : 유치원~초등학교 수준의 만화, 동화 등 영어책
 - 수집기간 : 10월18일(주일)까지
 - 수집장소 : 친교장 앞쪽에 Box 비치
 - 문의 : 이재용 안드레아 ☎(949)502-1213

- ◆ **구역장/반장 회의**
 - 오늘 주일(20일) 오후 1시 30분, 강당.

- ◆ **고 김길제 안드레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연도**
국수지 안젤라(전레분과위원, PV2반)의 부친이신 김길제 안드레아(향년78세)님이 지난 15일 한국에서 선종하셨습니다.
● 연도 : 오늘 주일 낮미사 후, 성전

- ◆ 남가주 청년 연합회 성서 퀴즈대회를 위하여 도네이션 하여 주신 본당 사목회, 소공동체, 양업회, 성모회, 대건회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 **성모회 고추장, 된장, 새우젓 판매**
 - 일시: 9월26일(토) 특전미사 후~27일(주일) 낮미사 후.
 - 빈 김치병이 있으시면 가져오 주십시오.

- ◆ **본당 비품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시다.**
9월13일부터 주일학교/한국학교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교실의 책상과 의자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아주시고, 교실 사용 후 책상은 원래 놓여있던 모양대로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 수업시간: 주일 오전 10시30분 ~ 낮 12시
* 한국학교 수업시간: 주일 낮 12시~오후 3시

- ◆ 김수환 추기경 DVD영상물이 도착했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가십시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9월20일(주일) : P.V. 2반 (고추장 돼지불고기 \$3)
 - 9월27일(주일) : 토런스 서3반(도시락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김교복	김대우	김성현	김원모	김원호
	김형순	나경흠	민봉식	민소예	박광자	박수익
	박순자	박정희	배태임	서홍삼	신경훈	안민수
	안연숙	안태갑	유영희	이명렬	이민상	이석호
	이영석	이영희	장수창	장영진	장정진	정명모
	정병훈	정상문	정훈모	주준제	채양석	최금옥
	최이원	한금순	한혁수	한혜숙	홍숙자	한길선례
	오진					
합계 : \$7,958						
미사헌금 : \$3123						

성전헌금	강덕희	김교복	김대우	김성현	김원모	김원호
	김형순	나경흠	민봉식	민소예	박광자	박수익
	박순자	박정희	서홍삼	신경훈	안민수	안연숙
	안태갑	이명렬	이민상	이석호	이영석	이영희
	장수창	장정진	정상문	정훈모	주준제	채양석
	최이원	한금순	한혁수	한혜숙	홍숙자	한길선례
합계 : \$2,955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TV 와 DVD 플레이어 기증 바랍니다.

- 주일학교에서 새학기를 맞아 TV세트와 DVD 플레이어를 필요로 합니다. 뜻있는 교우분들의 기증을 바랍니다.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주일학교장 ☎(310)780-1267

◆ 주일학교 Back to School Night

- 일시 : 9월25일(금) 오후 7시, 성당
- 대상 : 모든 주일학교 학부모 및 교사
- 내용 : 학교 소개 및 행사 안내, 교사 인사, 건의사항 등

◆ 미국대학의 최근 입학동향 설명회

- 일시 : 9월25(금) 오후 8시 성당
- 내용 : 금년도 대학입학의 변화 추세, 아이비 리그 대학의 아시아계 학생에 대한 입학차별, 대학/대학원 교육과 사회진출
- 강사 : 송종두 요한 박사(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 등록기간 : 9월27일(주일)까지
- 등록비: \$100 (9월14일 이후 \$110), 둘째 \$80, 셋째 \$60, 넷째부터 무료 * 자모회비: \$40 (가정당)
- 특히 2학년(첫영성체반), 9학년(예비 건진교리반), 10학년(건진 교리반)에 해당하는 학생은 꼭 등록해 주십시오.
- Liability 문제로 교구 지침에 따라 주일학교 학생은 반드시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학교 2009~2010 학년도 1학기 등록

- 등록기간 : 매주일 미사 전후
- 대 상 : 프리스쿨(만4.5세), K~12학년까지, 11월 SAT II 시험 준비학생(\$150, 교재비 포함)
- 등록비 : 첫째 아이 \$150, 둘째 \$140, 셋째 \$130, 넷째부터 무료. ☎(310)347-8765 이헬레나 교장

남가주 소식

◆ 남가주 성모 기사회 신심미사

- 일시 : 매달 첫토요일 오전 10시부터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2040 W. Artesia Bl.)
- 문의 : ☎(310)324-8159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30분
-------------	-----------

다음 주 단체 모임

9월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유현자 안나 328-3697 9/11(금) 오후 7시30분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정기은 비오 618-9775 9/19(토) 오후 7시
	3	신덕레 데레사 634-6169	신덕레 데레사 634-6169 9/17(목) 오후 8시2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김교복 레오 328-1817 9/12(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최상만 사비노 800-7393 9/18(금) 오후 7시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권영옥 루시아 720-2876 9/15(화) 오전 10시 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최경숙 수산나 320-0855 9/11(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박희자 마리아 325-6982 9/9(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장주란 마리아 320-3662 9/11(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이용식 베드로 962-8414 9/11(금) 오후 7시
	3	대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1	김민수 바오로 530-3232	김민수 바오로 530-3232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최진수 에우세비오 377-0345 9/11(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제일 미카엘 544-9460 9/18(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김명숙 루실라 404-6012 9/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김선제 바오로 435-9925 9/15(화) 오전 10시, 성당

◎ 서병교 라파엘 형제의 '파푸아 뉴기니' 선교 체험기 (2) ◎

본인은 한국 외방선교회 소속 '메트로 장학회'의 회원으로서 금번 기획된 '선교 체험단'에 합류하여 PNG를 14명의 회원들과 함께 7일간의 체험기간을 함께 했다. 본인은 기획된 기간 외에 별도로 2주일을 현지에 파견된 신부님과 함께 밀림 속에서 선교체험을 하게 되었다. 신부님과 함께 했던 모든 일정들은 신앙인으로써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 되었다. PNG라는 나라는 1975년 9월 6일 호주로부터 독립을 하였지만, 과거 100년에 가까운 식민지 생활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현대문명이 깊은 밀림 속까지 미치지 못하였기에 얼마나 깊은 밀림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밀림 속 원주민들의 생활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석기시대의 동화 또는 삽화'를 기억해 보면 된다. 전기, 상/하수도, 신문, TV, RADIO, 컵술, 치약, 비누, 신발, 의료시설, 학교시설(도서관 및 교실), 도로망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며 대수롭지 않게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최초의 선교사시절부터 식민통치 시대에 건설된 도로는 해변을 따라서 건설되어 있지만 도로의 상태는 너무 많이 손상된 도로 사정으로 인하여 자동차의속도가 약 20km의 속도 이상은 불가능한 상태로 이해하면 될 정도이다. 내가 동행들과 함께 했던 초기 1주일을 간략하게 소개 한다.

우리 선교체험단은 해변을 따라서 여러 본당을 다니며 원주민들이 준비한 환영식과 그들과 함께 미사봉헌을 하였으며, 그들이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리가 본당 입구에 도달하면 마을 입구에서부터 우리를 환영하는 행사가 시작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유의 복(악어가죽으로 만든 손복)을 두드리면서 가사를 이해할 수 없는 노래와 무용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 모두를 성당 안으로 인도하였다. 그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들의 미사봉헌의 내용은 너, 나 할것 없이 한결같이 '이곳에 사시는 신부님과 형제자매님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이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환영식과 애절한 그들의 기도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위선과 개인주의와 욕심을 뉘우치게 되어 스스로 작아짐을 느끼게 되었다. 미사 후 원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어 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당신들은 하느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며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합니까?" 하고 물어본 것이다.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였지만, 성경의 말씀 그대로였다. 그들은 "하느님께서서는 저희들의 존재가 태초에는 없었지만,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총을 주셨기에 우선 감사를 드리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어 바나나와 YAM을 썰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작물이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생전 처음 보는(파견된 신부님 제외) 외국인 단체가 우리 곁에 오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문명의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보고 느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에 하느님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의 필요성조차 모르고 있었다. 살아있는 자체가 늘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신앙심에 3-10시간 맨발로 정글을 걸어도 불평하나 없이 주일미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었다. MALALA 본당 장호창 신부님과 함께 우리들은 늪지대를 약 2시간가량 걸어가야지만 도달하는 공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출발 전 신부님께서는 "지금부터 밀림속의 늪지대를 계속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발을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행군이 시작되면서 약 10분후부터 시작되는 늪지대는 (평지에 가까운 산행) 발 한결음 한결음이 힘들 정도로, 한번 빠지면 발을 빼기가 힘들 정도였다. 복숭아 뼈까지 빠지는 늪지대의 행군과 흘러내리는 땀과 우리들의 등 뒤에 붙어 함께 여정을 같이 했던 파리 떼들 ... 앞사람의 등 뒤에 줄곧 붙어 다니는 파리 떼는 수십 마리 이상 되어 보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뽀뽀한 나무가 해를 가려주어 햇빛과의 싸움은 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밀림속의 끈적 끈적한 진흙 토양이며 한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오솔길은 우리들로 하여금 '과수원길'의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하였고, 공소에 있는 주민 몇 형제가 정글 칼을 들고 우리들의 여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 즉석에서 탄 맛있고 시원하고 신선한 야자수열매(코코넛)를 마시며 목을 축이기도 하였다. 비록 피부색과 언어, 입고 있는 옷과 모든 것이 낯설지만 그들이 건네주는 코코넛과 그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들의 진심어린 환영의 느낌은 내 생전 받아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 후부터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임이 확인 되면서 우리들은 태어나서 비누로 목욕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들과 뜨거운 포옹으로 늘 인사하게 되었다. 공소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서 자라고 있는 파인애플을 따주면서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먹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형제들을,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기약도 없는 사랑을 뒤로하고 돌아왔다. 돌아와서 새까맣게 색 바랜 양말과 통통 불어터진 발을 보며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다. 그날 저녁 나의 묵상은 다음과 같았다. "모든 신앙의 씨앗은 사랑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이 원주민(형제자매)들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은 같은 감동을 주는구나!" 끝으로 다음의 성경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참신앙의 길을 찾고자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배속으로 갔다가 뱃간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마태 15,11-18)

◆(다음 주보에 계속)